

1. 믿음이 커지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으로 달라질까?

혹시, 믿음을 '내 삶을 바꿔줄 도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저는 자주 그랬습니다. 믿음을 계산했고, 믿음의 크기를 재고, 때로는 믿음의 결과를 기다리며 조금해했습니다.

"기도한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하고, 헌신한 만큼 보상이 따라와야 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믿으면 내 삶은 조금 더 수월해질 거야." 그렇게 믿음은 어느새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열쇠처럼 여겨졌습니다. 조금 더 믿으면 고난이 줄어들 것 같았고,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망과 기다림을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결과를 얻는 공식처럼 생각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느리고, 손해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 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결박과 옥에 갇혔으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가 이들 모두를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견딘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경험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내가 원했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이 충분히 큰가?"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뢰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나는 내 믿음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구원, 축복 등)

→ _____

- 지금 내 믿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내 삶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기대와 결과에 붙들고 있나요?(예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까?'보다 '문제가 해결될까?'에 마음이 더 가 있었던 경험)

→ _____

-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내 삶을 바꿔주는 도구"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히브리서 11:35-40'에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응답이 늦거나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내 믿음이 작고 흔들려도, 그 불씨를 하나님께 붙들도록 돕는 습관이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예시: 하루 1 분이라도 '주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감사일기 쓰기 등)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믿음을 돌아봅니다. 때로 저는 믿음을 제 삶을 바꾸는 도구처럼 계산하고, 기도의 결과와 내 헌신을 맞춰보며 조급해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고 흔들리는 불씨처럼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문제가 남아 있어도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저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붙들며 나아갑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와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